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전주매일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음 5월 19일) 제182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난해 매출액 100대 기업 전북업체 전무(全無)

지역경제 취약성 대내외 증명

전주상의 조사 결과… 1000대 기업 중 도내 업체는 14곳 매출 순위는 100위권 밖
기업 1000곳 중 다수가 수도권 영남권에 집중… 충청·호남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지난해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가운데 도내에 본사를 둔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SOC시설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주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6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중 전북지역 기업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매울액 기준 1,000대 기업 가운데 도내에 본사를 둔 기업은 지난해 대비 4개사가 증가한 총 14개로 조사됐다.

2015년과 비교해 2개사가 1,00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6개사가 새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에 진입한 업체는 군장에너지(주), 페이퍼코리아(주),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한국세큐리트(주), 일진머티리얼즈(주), (주)동우 등으로 종이, 화학, 유리 등 관련 제조업 4개사, 발전업 1개사, 식품가공업 1개사로 조사됐다.

2016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전북지역 본사기업은 동우화인켐(주), 타타대우상용차(주), (주)하림, JB우리캐피탈(주), (주)전주페이퍼, (주)전북은행, (주)참프레, 군장에너지(주), 페이퍼코리아(주),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전북도시가스(주), 한국세큐리트(주), 일진머티리얼즈(주), (주)동우 등이다.

이들 기업 가운데 지난해 조사에서 589위와 776위였던 JB우리캐피탈(주)과 (주)참프레가 이번 조사에서는 461위와 670위로 조사돼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JB우리캐피탈(주)는 2013년 전국 매출순위 989위로 신규 진입한 이후 2014년 696위, 2015년 589위, 2016년 461위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1,000대 기업에 포함된 도내 14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7조9,79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911억원이 증가했으나, 전체 1,000대 기업 전체 매출(2,016조7,298억원)의 0.4%에 불과해 여전히 전국대비 매출액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000대 기업의 시·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693개, 69.3%)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179개, 17.9%)에 대부분의 기업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권(76개, 7.6%), 호남권(44개, 4.4%), 기타(강원, 제주) 8개 등으로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전북도에 경쟁력 있는 기업의 본사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항공·철도·도로 등 지역 SOC시설의 확충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보다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며, "성장하는 지역 내 토착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북도에 뿌리를 내린 기업들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12일 전북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선도지역인 고창 운곡 생태습지 탐방 및 표지석 제막식 행사에 송하진 도지사와 박우정 고창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운곡람사르습지를 둘러보고 있다.

'운곡 습지, 생태계의 보고 생태학적 보호 가치 높아'

고창군, 습지 일원서 탐방·체험행사 개최
송 지사 "생태관광지 고창 위해 전폭 지원할 것"

고창군이 12일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 일원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운곡 람사르 습지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운곡 생태습지 탐방 및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우정 군수, 최인규 군의장과 군의원, 기관 및 사회단체장,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운곡람사르습지 일원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환경가치의 중요한 곳으로 식물종 376종, 곤충 390종, 파충류 12종, 조류 51종 포유류 11종 등의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다.

특히, 멸종 위기종인 1급 수달, 황새, 멸종위기종 2급인 삵, 담비, 구렁이, 팔색조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 보호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세계적인 명품 생태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운곡 람사르 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에코촌 조성사업, 생태습지 복원사업 등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한 환경자원을 가진 것은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를 잘 활용해 인간과 자연이 가장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적 모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하진 도지사는 "지역에 있는 우수한 생태 관광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토탈관광 체계를 구축하는 생태관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창은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앞으로도 생태관광의 모범 지역인 고창군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며"밝혔다.

/김진성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青 "강경화, 14일 최종 기한 이후 青 입장표명 있을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송부 마감일인 오는 14일 청와대가 관련 입장을 낼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4일까지가 기한이니 우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며 "아마 14일을 넘긴다면 청와대 입장이 정리돼서 나가지 않겠나 싶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정이지만 현재로서 그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14일까지 기다려볼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은 국회 방문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그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며 "시정연설 직전 열린 국회 차담회에서도 대통령은 인선이나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의 발언 없이 주로 경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간사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뉴시스

중국 윈난성에 '한스타일' 꽃피우다

도, 남아시아-동남아 상품 전시회 무대로
18일까지 전시관서 '전북 문화상품' 홍보

전북도는 12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우호도시 윈난성에서 전북도의 문화상품을 홍보하는 한스타일 전시관 행사를 진행한다. 〈관련사진 4면〉

'한국 속의 한국, 전라북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북의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인 한지, 한복, 한소리,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체험공간으로 꾸며졌다.

동남아지역과 인접한 윈난성에서 개최되는 2017 남아시아-동남아국가 상품전시회 및 투자무역박람회를 무대로 7일간 펼쳐지는 한스타일의 향연은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박람회에 참가한 동남아 각국 참가자 80만명의 오감을 충분히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이원택 대외협력국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문화의 해외진출이 아닌 종합적인 전라북도 홍보행사"라고 강조하면서 "전라북도의 대외 이미지 향상을 위해 한스타일 전시관과 더불어 중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도내 대학 홍보관, 도내 중소기업 홍보관을 함께 구성하여 수출증대 등 중국시장을 겨냥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현지 시간 6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 한스타일 전시관 개막식에서는 남원시립국악단의 전통악기공연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를 마련하여 한국의 멋과 소리를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한스타일 전시관 운영은 한지·한복·한국의 소리를 테마로 구성되며, 한지공예품(한지접시, 한지손거울) 만들기 등, 체험 및 참여행사와 전북도내 14개 시 군 대표 관광지 사진전 등으로 전북을 홍보한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문 대통령, 국회서 시정연설